

11월10일 화답송 (다해) _연중 제 32주일

김은민 Cecilia 曲

시편 17(16), 1.4c과 5-6.8과 15(© 15L 참조)

주 님, 저는 깨 어 날 때 당 신 모습 에 흠 족 하 리 이

다.

1. 주님, 의로운 사연을 들어 주 소 서.
 2. 계명의 길 곳곳이 걷고, 당신의 주 길 에 서.
 3. 당신 눈동자처럼 저를 보호 하 소 서.

제 부르짖음을 귀여겨 들으 소 서. 거 짓 없 는 입술로 드 리 는,
 제 발걸음 비틀거리지 않았나 이 다. 하 느 님, 당신이 응 답 해 주 시 니,
 당신 날개 그늘에 저를 숨겨 주 소 서. 저 는 의로움으로 당신 얼굴 뵈 옴 고,

제 기도에 귀 기울
 제가 당신께 부르짖나이다. 귀 기울여 제 말씀 들어 이 - 소 서.
 깨어날 때 당신 모습에 흠족하 리 - 소 서.
 리 - 이 다.